

2506 오하라 린카

-대마도의 바다 쓰레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일한 해안 청소 페스타 in 대마도’에 참가했습니다. 페스타 참가 전에는 저는 올해에도 작년에 청소한 곳과 같은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해안에는 일본과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표기된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였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양국의 학생, 성인 봉사자들은 한 줄로 서서 릴레이 형식으로 쓰레기를 옮겼습니다. 2시간 동안 서로 협력한 덕분에 매우 많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폐회식 전 쉬는 시간 동안에 한국의 학생 자원봉사자와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대화를 하는 등, 일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해안 청소 페스타 참가를 통해 저는 대마도의 바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를 하면서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2506 大原凜花

-対馬の漂着ゴミ問題について痛感した1日-

私は、今回2日目の「日韓海岸掃除フェスタ in 対馬」に参加しました。フェスタに参加する前、私は今年も去年掃除した所と同じ場所でフェスタが行うと思いました。ですが、私たちが着いたところは去年と比べ物にならないほどゴミが多かったです。

海岸には、日本と韓国だけではなく中国のゴミもあり、さらに英語で表記されたゴミもありました。そのゴミを片づけるために日本と韓国からボランティアが集まりました。暑い日でしたが、両国のボランティアたちは国籍や年齢を問わず一列に立ってリレー形式でゴミを移しました。2時間ぐらいお互い協力したおかげで、非常に多くのゴミを片づ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その後には、韓国のボランティアの人たちと円陣を作って一緒に昼食を食べました。そして、閉会式前の休憩時間に、韓国の学生ボランティアとゲームをしたり、写真を撮ったり、会話をするなど、日韓交流の時間を持ちました。

今回の海岸掃除で対馬の漂着ゴミがどれほど多く、深刻な問題であるかを痛感しました。しかし、実際に掃除するなかで、韓国の人たちもその問題について真剣に考えていると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違う国の人たちが協力する楽しみ、喜びを感じられるとても為になる1日となりました。

2509 소노다 치사토

-'일한 해안 청소 페스타 in 대마도'에 대한 감상-

저는 일한 해안 청소 페스타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일한 해안 청소 페스타는 이들 동안 열렸는데 토요일은 나카라이토스이 기념관에서 일한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룹 별로 모여 바디 퍼커션과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같은 그룹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음악을 만들고, 하트를 접어 메시지를 적은 후 교환했습니다. 저희를 배려하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본어로 쓴 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대마도의 바다에 가서 해안 청소를 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대마도의 바다를 청소하는 것을 보며 저는 작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마도의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인간의 따뜻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해안 페스타에 참가한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해안 청소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본인과 한국인이 힘을 합쳤고, 양국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순수하고 멋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더욱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2509 園田千聖

-'日韓海岸掃除フェスタ in 対馬'の感想-

私は日韓海岸掃除フェスタに初めて参加しました。このフェスタは2日間開かれ、土曜日は厳原の「半井桃水館」で日韓交流会が行いました。

日韓交流会ではグループ別にボディパーカッションの発表と折り紙をしました。同じグループの人達と意見を交わし、ひとつの音楽を作ったり、折り紙でハートを折って、その上にメッセージを書いたりしました。韓国の学生達が一生懸命覚えた日本語で書いたメッセージはとても感動でした。それは私の宝物となりました。

日曜日は対馬の海に行き、海岸掃除をしました。始めは少し違和感がありましたが、対馬の海を綺麗にするために汗を流す人々の姿を見て、人の優しさと、「喜び」を感じました。

短い時間でしたが、今回の日韓海岸掃除フェスタに参加したことは、私にとって特別な経験となりました。海岸掃除という一つの目的をために日本人と韓国人が力を合わせて、両国の人々が一つになり、努力した、純粋で素晴らしい時間でした。

これからさらに韓国語の勉強を一生懸命して、いつかは日本と韓国をつなぐ架け橋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